

하나의 미흡한 점이라도 있을세라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대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시원하게 탁 트인 별관에 모래주로와 잔디주로, 청석도로들이 쪽쪽 뻗어 있는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었다.

이윽고 주로옆의 건물들과 주로들을 일별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잔디주로와 청석도로사이에 물도랑을 쪽 내주어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의 잔디주로는 장마철 같은 때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흘러들게 되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야외관람대지붕을 가리키시면서 건물들의 처마끝에서 떨어지는 락수물이 주로에 흘러들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거듭 이르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승마봉사기지에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그리도 마음쓰시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이시였다.